

고향서 시즌 첫 승 담금질 '골프지존' 신지애 인터뷰

“성적 부진때 남친도 못 만나요”

“고향에 오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모든 것 잊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연습할 거예요”

지난 15일 LPGA 시즌 개막전 SBS 오픈에서 컷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신지애(21·미래에셋) 선수가 18일 담양 가산골프랜드에서 시즌 첫 승을 향한 샷을 가다 듣고 있다.

이날 후타리 차림의 신지애는 프로 동갑내기 김하늘(21·코오롱 엘로드) 선수와 함께 연습라운딩을 가졌다.

이들은 가볍게 농담도 주고 받으며 여유있는 모습으로 한 홀 한 홀을 풀었다. 겉으로 부담없이 가볍게 치는 듯했으나 그들이 날린 볼은 정확히 홀 근처에 모여 있었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이들이 같이 연습라운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하지만 샷을 풀 수습이나 방송 출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은 항상 같이다니는 단짝처럼 가까워 보인다.

5년 연속 비시즌때 이 곳을 찾은 신지애는 “프로들에게는 샷보다 거리감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이 곳이 세컨드 샷이나 써드 샷의 거리감 잡는 연습을 하기엔 최적이다”고 말한다.

오는 20일까지 이 곳에 머무를 예정인 신지애는 오전엔 거리감 익히기, 오후엔 영평원전 골프장으로 옮겨 실내연습 등으로 매일 10시간 정도의 고강도 훈련을 가질 계획이다.

다음은 신지애 선수와 일문일답. -지난 LPGA SBS 오픈 대회 컷 탈락의 원인은

▲그 간 자신감이 넘쳐 너무 여유를 부렸던 것 같다. 차라리 이왕 맞을 때라 빨리 맞은 게 더 약이 될거라 생각한다.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추스릴 수 있는 계기가 삼았다.

-올해 목표는 몇 승 ▲목표를 세워 놓으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이루지 못했을 때 실망이 커져 결국 경기력을 잃어 버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죠. 그래서 목표 없이 매 대회마다 똑박똑박 1승씩 쟁겨나가고자 합니다.

-위성미 선수와 같이 대회를 치렀는데 부담을 갖지 않았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만의 플레이를 했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 믿어요.



미래에셋의 후원을 받고 있는 신지애(왼쪽) 선수가 17일 담양 가산골프랜드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프로 동갑내기 김하늘 선수와 함께 연습라운딩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담양·영광 오가며 하루 10시간 맹훈련

LPGA 'SBS오픈' 컷 오프 자만심 때문

휴식편 음악감상...마늘·홍삼 즐겨먹어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 ▲이름을 밝힐 순 없어요. 사관지 2년 정도 됐고 지금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이에요. 아시안게임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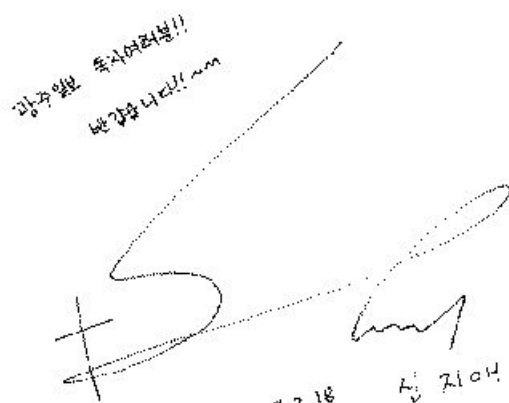
-아버지는 남자친구에 대해 어떤 반응인지 ▲될 수 있으면 많은 남자를 만나보라고 한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에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 하지만 경기력이 떨어지면 이성교제를 더이상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나면 음반을 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낼 것인가 ▲아니다. 아버지가 비시즌 중엔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2년 전엔 힙합 댄스도 배웠다. 하지만 시즌 중엔 골프에만 전념해야죠.

-훈련없는 날엔 무얼하고 지내나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물론 음악도 듣고 책도 많이 읽어요.

-체력 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은 ▲평소 마늘·매실 액기스와 홍삼을 즐겨 먹고 시합 후엔 고기도 즐겨 먹는다.

-고향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성원해 주신 모든 고향 팬들에게 감사 드리고 모든 대회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머물면 연습도 반드시 고향에 내려와서 할 계획이에요.



신지애

▲성원해 주신 모든 고향 팬들에게 감사 드리고 모든 대회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머물면 연습도 반드시 고향에 내려와서 할 계획이에요.

▲성원해 주신 모든 고향 팬들에게 감사 드리고 모든 대회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머물면 연습도 반드시 고향에 내려와서 할 계획이에요.

▲성원해 주신 모든 고향 팬들에게 감사 드리고 모든 대회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머물면 연습도 반드시 고향에 내려와서 할 계획이에요.

▲성원해 주신 모든 고향 팬들에게 감사 드리고 모든 대회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머물면 연습도 반드시 고향에 내려와서 할 계획이에요.

“고교축구 최강 가리자”

광양서 백운기고교축구대회 개막 전국 29개팀 참가 28일까지 열전

제11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전국 2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문일고와 송실고의 첫경기를 시작으로 18일 개막됐다.

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백운기 축구 대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광양공설운동장 등 4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 2009년 고교축구의 판세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제주 오현고를 비롯해 서울 중경고, 경기 백악고, 경

북 안동고 등 전국 우수 고교팀이 참가하여 예선전 조별리그를 거쳐, 16강전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우승팀에게는 우승기와 장학금이 지급된다.

광양시는 참가 선수단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광양공설운동장 등 4개 경기장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경기 안내와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수단이 이용하는 숙박·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함 손님맞이도 당부했다.

또한 참가 선수단을 환영하고 대회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선수단과 지역단체의 자매결연을 통해 환영 현수막을 내걸게 함은 물론 경기 응원도 하게 하고 있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



임태혁, 대학씨름왕 등극

18일 강원 횡성체육관에서 열린 2008-2009 MBC ESPN 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임태혁(경기대.홍살바)이 노명식(경남대)을 안다리 걸어 잡채기로 제압하며 소장급(80kg 이하) 최강자에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생체협 23일까지 '광장지도자' 모집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창준·이하 생체협)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할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체육부문 3개 종목 이상 지도가능하거나 생활체육 지도자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지도자는 생활체육광장 운영 및 지도, 생활체육 관련정보 제공, 효과적인 운동방법들을 시민들에게 지도 할 예정이다.

이른 아침 맑은 공기속에서 건강을 다지는 '생활체육 광장'은 가까운 초등학교 운동장, 공원, 동네 뒷산 등지에서 에어로빅과 스트레칭, 단학기공,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생체협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5개구 26개소에 생활체육광장지도자 26명을 배치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371-7330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19일 (목) ▲대학장사씨름 최강전 역사급(13:00·MBC ESPN)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 삼성생

명(16:50·SBS스포츠) ▲V리그 <GS칼텍스> 흥국생명(16:40), <대한항공> 현대캐피탈(18:40·MBC ESPN) ▲프로농구 <SK> 동부(18:50·MBC ESPN), <전력발전> LG(18:50·SBS스포츠·XSPORTS)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for 'Small Business'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such as '미래한의원', '금강보청기', 'OK중고합인매장', '부영통닭', '한백년결혼정보', '섬진강민물장어', '혹석자동차정비코너', '디메르간미', '김미숙피부건강클리닉', '실로암건강원', '송운상사', '청호철학원', '로동보신탕', '이성춘치과', '브레인학원', '공작지소주방', '에지원플라워', '미미원', '무등옥션예술인협회', '남호한우', '양산바둑도장', '멧돼지짚불구이', '일월무역', '승일공인중개사', '쌍스부대찌개(쌍무림비스트)', and '가나주방월드'.